

종단 내 양극화 실태 조사 나선다

조계종 불교사회학 연구회 신년 계획

연구소장 법안 스님의 재임으로 2기 체제에 접어든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종단 내 양극화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들어간다.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아카데미 사업과 교재 출판 사업도 추진한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2월 24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추진될 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연구소는 △종책 △호국불교 △기초 자료 △불교사회 △연구기반 구축 5개 사업 영역에 걸친 사업 계획을 내놨다.

이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종책 연구분야의 '종단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방안 연구'이다. 이는 불교 안에 내재된 양극화 문제를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안이다.

연구소장 법안 스님은 "불교 내부에도 교구부터 지역 사찰, 스님 간의 양극화가 심각하다"면서 "더 이상 간과하고 있을 수준이 아니다. 종단 차원에서 이를 연구해서 해소 방안을 어떻게 종책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단 재정을 국고에서 독립시키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재정 자립도가 높아져야 종단의 건전성도 자리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책 분야 연구사업으로 종단 개혁 20주년 기념 사업을 총무원과 연계해 진행하며, 불광연구원과 공동으로 초·중·고 윤리교과서 불교 관련 서술 검토 토론회를 6월 중 개최할 계획이다.

각종 행사 시 의전에 대한 의견편람과 재가불자들의 수행방법과 체계 등을 살펴본 '재가불자 수행체계 조사'를 3월 중 발표한다.

매년 실시된 대국민 여론조사는 올해 조급 불륨을 키워 진행된다. 2011년 연구소 개원에 맞춰 발표된 조사와 연계해 3년 주기의 정기조사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법안 스님은 "상시적으로 진행되는 조사 외에도 3년마다 시행되는 여론조사는 큰 밑거름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불륨있게 진행될 것"이라며 "질문지는 계획 중에 있으며, 이런 여론 조사들은 여론의 추이와 인식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불교 내 의식들이 고양될 수 있도록 교육과 출판사업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미약한 불자들의 사회 인식 제고를 위한 불교사회윤리교재를 발간하고 인문학, 사회학을 접목한 아카데미도 진행한다.

스님은 "사회적 의제에 대한 불교적 해석을 담긴 사회윤리교재를 준비 중"이라며 "의식교재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삼선승가대학, 불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

시대는 변화한다. 이에 따른 승가 교육 환경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지난 1978년 개원해 통학 강원으로 비구니 스님들의 도심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오던 서울 삼선승가대학(학장 묘순)도 변화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삼선승가대학은 지난 1월 17일 30회 졸업식을 끝으로 기본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날 졸업식은 새로운 출발에 대한 다짐이기도 했다. 앞으로 삼선승가대학은 기본교육기관이 아닌 전문교육기관인 불학승가대학원으로 변모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36년 전 설립된 삼선승가대학은 유일한 통학형 강원으로 사중 소임이 바빠거나 건강 상 이유로 대중 생활이 어려웠던 비구니 스님들의 기본교육을 책임져 왔다. 지난 30기까지 총 26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모두 수행, 포교, 복지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중에는 대중에도 잘 알려진 농아인 포교의 달인 혜성 스님(평립사 주지)은 대표적인 삼선의 제자이다.

학장 묘순 스님은 "36년을 한결같이 이끌어왔지만 시대의 흐름은 어쩔 수 없다. 출가자 감소에 대한 영향도 적지 않았다"면서 "종단의 승가교육 방침에 따라 승가

대학을 정리하고 대학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동문 스님들이 '후학을 위해 교육불사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요청했고, 이에 응했다"면서 "시작했으니

36년간 266명 졸업생 배출

유일한 통학 강원... 대학원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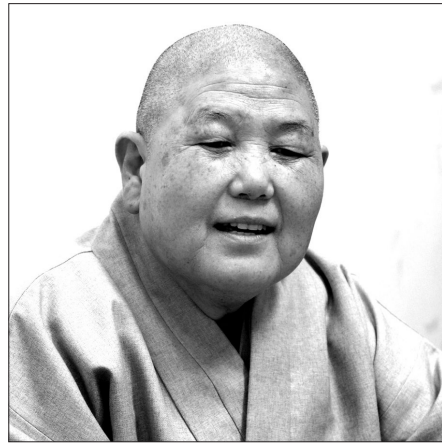
오는 3월 26일 입학식 및 개강

금강경 등 한문원전 교육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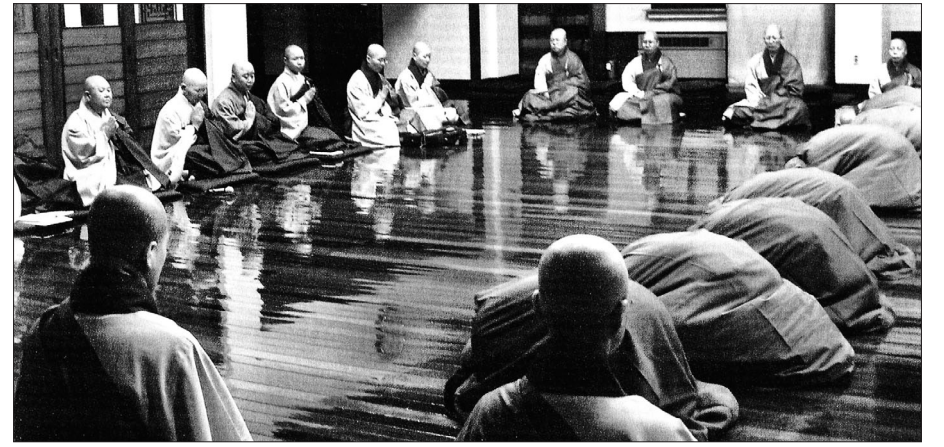
"양질 교육프로그램 제공할 것"

불학 전문 대학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선불학승가대학원은 오는 3월 26일 오전 10시 입학식을 개최하며, 공식적인 학사 일정을 시작한다. 한문불전을 수학과 고연찬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았으며, 교육 참여대상자는 비구니 스님이다. 이전



삼선승가대학의 오늘을 있게 한 학장 묘순 스님



2007년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이 방부를 들이고 있다. 이제는 불학승가대학원으로 전환한다.

과 같은 통학형으로 2년 4학기 과정이며, 수업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된다.

주요 교육 커리큘럼도 확정됐다. 1학년 1학기에는 금강경, 아함경, 한문학연구 I를, 2학기에는 구사론, 원각경, 한문학연구 II를 가르친다. 2학년 1학기에는 해심밀경 유식30송, 중론, 2학기에는 한국과 중국의 선문헌을 공부한다. 이듬해에는 유마경, 능엄경, 선시, 법화경을 1학년 때 배우고 2학년 때는 기신론, 화엄경삼십십지, 한국선문헌, 중국선문헌을 수하게 된다.

"전국 부대 곳곳에 군장병 편히 쉬는 법당 개설"

군종특별교구 26일 신년회건서... 1사찰 1군법당 운동 전개

군종교구가 2014년 신년계획으로 낙후된 군법당 개·보수사업을 전개한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정우 스님(사진)은 2월 26일 서울 호국 원광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사업 계획을 밝혔다.

정우 스님은 "불자들의 힘을 모아 우리나라 군부대 시설 중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논산 호국연무사를 건립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전방 격오지 등에는 노후화된 부대 법당들이 산재해 있다. 이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보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군종교구에 따르면 논산훈련소 외에 전체 군장병의 56%가 교육을 받는 각 부대 신병교육대에 조차 법당이 없는 곳이 태반이다.

스님은 "신교대의 이전으로 법당이 없어 가건물을 법당으로 쓰는 곳이 많다. 주로 초임군인이 부임하는 격오지의 경우도 조립식 막사를 법당으로 이용하는 등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낙후된 군법당을 개보수하는 데는 예산이 관건이다. 군종교구는 군법당 불사를 위해 건국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축사찰 표준 설계안을 작성할 계획이다. 향후 연대·사

단·군단 등 각급 부대별 법당 모델을 마련해 건축비를 절감한다는 계획. 건국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공병병과출신의 예비역 장성이 임명된 상태다.

예산 확보를 위해 정우 스님은 군장병 불자 배가운동도 올해 중점사업으로 진행한다. 정우 스님은 "예산 16억원 중 종단지원금은 2억 5000만원에 불과하다"며 "일하기로 하면 돈이 한없이 필요하지만 돈 갖고 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많은 불자들의 지원과 관심이 있어 군종교구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만큼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계장병 일반사찰 연계 모색

군종교구는 10만명에 달하는 수계장병을 제대 후 사찰에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포교원과 함께 개발해 실질적인 불자양성으로 거듭나게 할 방침이다. 또 장병들을 이끄는 부사관 이상 급 장교포교도 강화할 계획이다.

스님은 "군복무 시절 부대에 법당이 없어 개인교 종교행사에 참여해야만 해 찬송설계안을 작성할 계획이다. 향후 연대·사



격오지 법당 보수 불사 추진 예비역 군승 활용 포교 전개

지켜보던 지휘관이 서류를 뒤져 내가 스님인 것을 알게 됐다. 알고 보니 중대장부에서 사단장까지 모두 불자였다. 그 인연으로 중대·대대·연대·사단까지 법당을 건립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장병들은 이동이 잦고 계급간 눈치를 보기 때문에 하사관일 비롯해 오래 근무하는 장교들이 중요하다. 군종교구에서는 불자 하사관·장교를 교육기관부터

자대배치 후까지 관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스님은 "포교원과도 연계해 장병들이 제대후 일선 사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자란 군법사, 민간서 총원

군종교구는 또 군법사 외에 재가 포교사 관리체계를 정착해 포교전선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포교사 간담회를 분기별 1회 개최하고 보시금이 들어오는 영의 법당을 격오지 영내법당과 이어주는 구조도 만들기로 했다. 이밖에 제대한 예비역 군승법사를 비롯한 관계자 500여 명의 재능기부를 유도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또 '군장병 위문품 보내기' 사업 일환으로 부처님오신날을 기해 59개 부대에 3만여개 '자비의 선물'을 지원하며 장병 월동준비물 면담감도 전달할 예정이다. 군종특별교구는 올 초 44개 부대에 22만개의 핫팩을 후원한 바 있다.

정우 스님은 "젊은 나이에 군대에서 만나 불교의 가르침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동쪽으로 가는 기운 나무는 결국 동쪽으로 쓰러지기 마련"이라며 불자들의 동침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종삼·지현·탄공 스님 15대 종회의원 선출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직능대표에 종삼 스님(전 화엄사 주지)과 지현 스님(청량사 주지)이, 마곡사 중앙종회의원에 탄공스님(교과사 주지)이 선출됐다.

조계종 직능대표선출위원회는 2월 27일 회의를 열고 직능직 강원대표에 지현 스님, 울원대표에 종삼 스님을 선출했다. 마곡사는 덕천 스님이 후보를 사퇴한 가운데 27일 산중총회를 열어 탄공 스님을 종회의원으로 선출했다. 총회에 서 탄공 스님은 75표, 혜우 스님은 28표를 획득했다. 2표는 무효 처리됐다.

종삼 스님은 도광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5년 화엄사에서 도천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9년 범어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지현 스님은 법종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1년 보각사에서 법종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5년 범어사에서 소천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탄공 스님은 능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6년 망월사에서 정영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5년 범어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신종일 기자

周易禪解 강의 모집안내

원조각성 큰스님 강의

우익지옥대사 (1599-1655) 周易禪解

佛敎的으로 주역을 해석한 周易禪解를 강의 한다.

지옥대사는 명 말의 불교를 마지막으로 활짝 꽃피운 최후의 거장이다. 周易禪解는 진시왕도 분서경유 중에 주역을 태우지 않을 정도로 귀중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佛敎的 주역강의는 감히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것을 근대에 유불선의 통달한 대 강백이신 각성 큰스님께서만이 명쾌하게 풀이로 명강의가 될 것 입니다. 이 귀중한 인연을 함께해서 자기완성에 성찰하시길 바랍니다.

- 강의일시 : 첫 강의 3월 19일
- 강의시간 : 매월 첫째주 수요일 오후 2시 ~ 5시까지
- 수 강 료 : 6개월 300.000원
- 기 간 : 2년
- 모집인원 : 50명 ■ 교 재 : 별도
- 대 상 : 비구, 비구니, 재가자 약간명
- 접수기간 : 2014년 3월 1일부터 ~ 18일까지
- 입금계좌 : 농협 352-0293-1539-53 (예금주 : 최재동)
- 접수문의 : 010-4242-7070 화염법경 스님
- 강의장소 : 경기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213-50번지 좋은절

KTX 광명역 오후 1시 동쪽편 불교차운행

[승 용 차] 서울용인고속도로 서문당 고기동 내려서 절까지 2분거리 [좌 석 버 스] 조계사 건너편 5500-1번 미금역 (보당 미금역에서 택시 10분거리) [지하철 이용] 미금역하차 7번출구쪽 마을버스 14번, 32번 -고기초등학교하차 도보 20분거리

통화불교 전강원 경전연구원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 과정 (45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한 교육에 실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4년 4월 7일 (월요일) 오후 3시 (복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녹음CD 우송)

2. 교육내용

- ① 송 주 편 (도량식, 조석종성 등)
-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 ③ 헌 공 편 (삼보통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개의식편 (천도제, 49제,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구명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법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